

더불어
민주당

최승선의 의정보고서

"4년간 발로 댄 기록"
오직 시민만을
생각했습니다.



최승선

현)김제시의회 의원

더불어
민주당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원 최승선입니다.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복되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하며 큰절 올립니다.

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김제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을 위해 일해 온 지 어느덧 4년이 다 되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 김제시의 흐름과 주민의 바람을 배우고

익히며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4년 전, 주민 여러분께서 저 최승선을 신평동·봉남·황산·금산면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깊은 뜻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하며 일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제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힘써 왔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운 일도 있었고 힘에 부쳐 못다 한 일도 적지 않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주민 여러분께 올리는 의정활동 보고는 중요한 책무입니다.
의정보고서 발간을 고민하며 김제시의원 4년 동안의 궂적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저의 의정활동이 제 개인의 성과가 아닌 주민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온 지역사회 역사의 한 페이지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삶과 일과 삶의 기록을 의정보고서에 담고자 애썼으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제 의정보고서의 기록이 오롯이 주민 여러분 것으로 여겨주시길 바라는
작은 희망 하나 품어 봅니다.

잘한 일은 응원해 주시고, 못한 일에 대해서는 질책해 주십시오.

아쉬웠던 일, 힘에 부쳐 못다 했던 일에 대해서는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주민 여러분과 함께할 때 힘도 나고 든든합니다.

지난 4년, 주민 여러분과 함께라서 좋았습니다.

불초 최승선의 의정보고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평동·봉남·황산·금산면
주민 여러분께 삼가 헌정합니다.

김제시의원 최 승 선 세배

CONTENTS

005 / 조례안

- 006 / 김제시의회 개원
- 007 / 안전개발위원장 인사말 신문기사
- 008 / 김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
- 010 /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지원
- 010 /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012 / 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 012 / 김제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014 / 김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 014 / 김제시 국가유공자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안
- 015 / 김제시의회 의정봉사상 수상
- 016 / 대한민국 청소년대상 수상
- 017 / 국가보훈부 장관 감사패 수상
- 018 /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작물 육성 및 지원
- 020 /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 022 / 김제시 생활연구 기본 조례안
- 023 /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024 /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25 / 5분발언

- 026 /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유치관련 대응전략 마련
- 028 / 도심권 노인들을 위한 휴게공간 마련 대책 촉구
- 030 / 김제시 갈등해결을 위한 적극행정 촉구
- 032 / 제2차 공공기관 이전대비 선제 전략 마련 촉구
- 034 / 김제시 환경자원 정책 제언
- 036 / 지평선 문화축제발전소 활용 및 시민원상담시스템 구축 제안
- 038 / 김제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 촉구
- 040 / 지명정비통해 미완의 일제 잔재 청산 촉구
- 042 /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위한 사회적 돌봄 전략 제언
- 044 / 인구 10만 회복을 위한 민,관,정 상설 협의기구 설치 제안
- 046 /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맞춤형 대응 전략
- 04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경심사안 심사완료

049 / 건의,결의안

- 050 / 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문
- 052 / 2024년 공공비축미곡 신동진 벼품종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철폐 촉구건의안
- 054 /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
- 056 / 은퇴자 마을 유치 서두르자 김제신문 기고

057 / 시정질문

- 058 / 김제시 출산지원 및 인구정책에 관하여
- 060 / 민간단체 보조금 평가등급이하 사업에 대해
- 062 / 지속가능성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중요성 강조
- 064 / 겨울철 김제농촌관광을 위한 곤포활용방안 김제신문 기고

065 / 4년의 발자취

- 066 / 두월천 안심산책로 가로등 조성사업
- 067 / 봉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사업
- 068 /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069 / 봉서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 070 / 동초등학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
- 071 / 의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072 / 김제시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 073 / 금산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 074 / 봉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075 / 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076 / 봉남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077 / 귀농귀촌 생활SOC·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 078 / 원평공설시장 5일장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 079 / 김제시 공공배달앱 먹깨비 도입 운영
- 080 / 황산면 아스콘공장 철회 상황 보고
- 082 / 원평집장소 복합문화공간 조성

포례안





제9대 김제시의회 개원

시정운영 위한 견제자 역할 충실 (22.07.13)

전주매일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016면 기획

“시정운영 위한 견제자 역할 충실”



■ 최승선 안전개발위원장 ■

지역에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농 균형개발과 안전한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집행부와 늘 소통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여 시정운영을 위한 견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께 잘한다 칭찬받고 김제시를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저력있는 안전개발위원회로 꾸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로 꾸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최승선(위원장), 오승경(부위원장), 유진우, 주상현, 김주택, 김승일 의원

도농균형개발-안전도시 인프라 구축(22.07.21)

전민일보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016면 기획

“도농 균형개발-안전도시 인프라 구축”

최승선 안전개발위원장



최승선 위원장

최승선 안전개발위원장은 “지역에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도농 균형개발과 안전한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집행부와 늘 소통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공부하고 연구해 시정운영을 위한 견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시민들이 잘한다는 칭찬과 함께 김제시를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저력있는 안전개발위원회로 꾸려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안전개발위원회(6명)= 최승선(위원장), 오승경(부위원장), 유진우, 주상현, 김주택, 김승일 의원.

김제=임재영기자

제262회 제1차 정례회 (2022.9.23)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김제시의회제262회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김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

▶발의: 최승선의원 ▶결과: 원안가결
▶의결: 2022. 9. 23. (금)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경제행정위원회

최승선 의원이 김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여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사회적 경제조직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함께 지역도 동반 성장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확신을 위해 경쟁력있고 우수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정 규모의 일자리 제공과 적정 인건비 지급, 정규직 고용, 근로자복지 우수기업 또한 꾸준히 지원하고 양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며 지속발전 가능한 김제를 만들기 위한 든든한 밑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제시의회

김제 사회적경제기업 10여개 참여...우선구매 페스타 개최

유청 기자(=김제)기사입력 2025.04.30. 13:14:59



▲김제시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페스타 개최©김제시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페스타'를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부스를 운영해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구매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경진원) 최인남 공유경제팀장을 초빙해 강의를 진행됐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의 중요성과 실무적 역량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사회적기업 10여 개 업체가 직접 참여해 친환경 생활용품 지역 특산품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홍보했다. 실무자가 직접 제품을 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홍보부스가 함께 운영돼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 구매 및 상담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시청 직원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구매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원발의 조례안

제28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2024.9.13)

최승선 의원!
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



제28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2024.10.25)

최승선 의원!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의 사회적 책임과 행위 기준에 따른
의정활동비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용 조문을
반영해 청렴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자 제안



합계 20200727 16:35

김제시의회, 최승선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위한 사회적 돌봄 전략” 제안



/김제시의회 제공

김제시의회 최승선의원은 지난 26일 제281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가족 돌봄 청소년(young care)를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최의원은 해외 연구를 인용해 한국의 가족 돌봄 청년인식 및 정책대응 수준이 가장 낮은 7단계임을 지적했다.

특히 「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 마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했고 “대상자 발굴에 맹점이 있어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사례가 있다”며 “제도적 보안을 통해 적극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는 결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김제시가 공공안전망의 지평을 넓히고 조화로운 공동체 구축에 한발 더 앞장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며 발언을 마쳤다.

의원발의 조례안

제28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2024.10.25)

최승선 의원!
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안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과 이용 증가에 따른 전환 시대를 맞아 시민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문해교육을 지원해 시민의 역량 강화와 정보 격차 해소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



제28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2025.2.14)

최승선 의원!
김제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권익위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중 '지방의회 입법·법률고문 연임 제한 규정 마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



김제시,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공모선정...디지털문해 등 3개 분야 지원

윤정 기자(=김제) | 기사입력 2025.04.03. 13:47:38



▲김제시 교육부 성인문해교육사업 공모 선정(©김제시)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교육부 주관 '2025년 교육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공모선정돼 국비 3600만 원을 확보하고 기초 문해 디지털 문해 생활문해교육 등 3개영역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문해교육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독능력을 포함한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비문해자를 위한 기초교육 프로그램으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문해능력을 갖추고 정보 영어 등 문해교육의 범위가 생활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포함한 생활과학 경제활동 직무 관련 능력 등 문해교육의 영역이 생활밀착형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선정을 통해 시는 지평선학당 한글반을 비롯한 4개 기관에서 문해교육 수준별 8개반이 운영될 예정이며 특히 사회전반적인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기초 문자해독교육과 더불어 생활밀착형 안전생활 경제교육 등 학습자의 실제 삶과 맞닿아 있는 실용도 높은 성인문해교육이 함께 운영될 계획이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문해교육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는 성인문해교육 과정이수를 통해 초등학력졸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읍면동 9개소에서 '지평선 한글시강방'도 운영되고 있어 교량의 문해 학습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육기관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혀 많은 시민에게 교육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글을 읽고 쓰는 문해력은 일상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고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위한 근본적 토대가 되는 역량으로 앞으로도 문해학습자들이 배움의 권리를 찾고 교육을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교육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의원발의 조례안

제28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2025.3.19)

최승선 의원!

김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신규 복지사각지대의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

제290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2025.6.18)

최승선 의원!

김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제안

최승선-양운엽 김제시의원 의정봉사상 수상



최승선, 지역균형발전-도시 인프라 구축등 공로 인정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최승선 의원이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7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표창을 전수받았다.

최승선 의원은 김제시 라 선거구(봉남, 황산, 금산, 신흥)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제9대 전반기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아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균형개발,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도시 인프라 구축과 농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정책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승선 의원은 “시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김제 시민들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 아름다운 김제를 건설해 나가는 데 더욱 정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제=류우현기자

全羅日報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지역 광주·전남 문화 스포츠 기획&시리즈 오피니언 1 인사·알림 포토·영

김재 입력 2024.12.23 14:41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 대한민국 청소년 대상 수상



김제시의회 최승선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과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회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시상식에서 교육부문 의정 봉사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청소년 관련 교육, 정치, 행정, 사회, 보건, 문화부문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들을 선정하는 행사다.

최의원은 청소년 보호와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9월 13일 ‘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지역 청소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최승선의원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건전한 성장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 국가보훈부 장관 감사패 수상: 보훈 가족 예우 및 복지 증진 공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정 활동에 해 왔습니다.

- 보훈 수당 인상 및 현실화 :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의 단계적 인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보훈 단체 운영 지원 : 지역 내 보훈 단체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단체 간 교류 협력을 지원하는 데 힘썼습니다.
- 보훈 문화 확산 제도 마련 :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훈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김제시 국가유공자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제290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2025.06.18)

제29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최승선 의원!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례안은 아열대 기후 확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후에 적합한 농작물 품종 육성을 지원하여 김제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안

김제 임력 2025.04.01 12:43

기후변화 대응하는 김제시, 아열대 작물·작부체계 전환으로 농업구조 혁신

김제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하는 재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소득 작물과 품종, 작부체계를 적극 발굴하며 농업 구조의 전환에 나서고 있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해 국내 작물의 재배 가능 지역이 북상하면서 전통적인 작물과 재배 방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는 작물의 성장뿐 아니라 개화 시기, 수확 시기, 나아가 재배지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작물의 주산지도 점차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애플망고, 바나나, 바닐라 등 아열대 작물의 재배 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25헥타르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메밀, 커피 등 4~5종의 대체 작물에 대한 현장 실증도 병행해 지역 적합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품종에 맞는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과 실증 연구를 추진하며, 재배기술 데이터와 생육모델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작황 예측과 품질 향상에 필요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작부체계 전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기존의 단작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2기작 가을감자, 밀-콩 연작, 나물콩 이모작 등 다양한 작부 방식이 도입되고 있으며, 특히 논콩과 시설감자 재배 비중이 높은 김제시에서는 이를 활용한 소득 보전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은 "김제는 지역 기후와 재배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이에 적합한 품종 선별과 작부체계 전환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84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2024.11.28)

제284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최승선 의원!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야 시간, 공휴일 등 의료 취약 시간대에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및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

김제=조원영 기자

승인 2025.01.15 10:47



김제시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과 달빛어린이병원이 2025년도부터 확대 운영된다. 지난 2023년 문을 연 공공심야약국은 2025년부터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리고 운영 시간도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달빛어린이병원을 기존 주 4일제에서 주 7일제로 확대 운영한다. 공공심야약국은 나은온누리약국(밤 9시~밤 12시)과 화타약국(밤 10시~새벽 1시)에서 전문 약사가 심야 취약 시간대에 상주해 의사 처방에 따른 조제와 올바른 복용지도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 처음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9,330명의 시민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신속한 외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믿음 병원(금성로 90)이 운영 중이며, 2024년 달빛어린이병원 총 진료건수는 6,195건(평일 4,525건, 주말 1,670건)으로 일일 평균 30여 명이 병원을 이용했으며 전주·익산 등 인근 지역에서도 야간·휴일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큰 호응으로 2025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은 2개소로, 달빛어린이병원은 주 7일로 확대 운영하게 됐다” 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전북권 4대 도시로 준비하는 김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제28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제28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최승선 의원!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개념 도입에 따라 김제시 생활인구
유입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 기반 사항을 규정해
지역 인구 증가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

최승선 의원

생활인구 5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확대전략 본격 추진

홍보축제실 2025.04.01.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생활인구 5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시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희옥 부시장 주재로 '생활인구 증대 방안 보고회'를 열고, 지역 활성화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37개 부서장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2026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 생활인구 수가 반영되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생활인구란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록 인구,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지역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2024년부터 통계청이 89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수치를 공표하고 있으며, 2024년 김제시의 생활인구는 33만명으로 정주인구 대비 약 4배 수준에 이르며 지역 특산물·전통시장 연계 관광상품 개발, 지역축제 및 문화 행사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등을 통해 생활인구 50만명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김제시는 단순한 주민등록상 인구 증가를 넘어 지역을 방문하고 활동하며 머무르는 인구를 적극 유치하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인구 증대가 지방재정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김희옥 부시장은 "생활인구 확대는 지역 경제와 도시 발전의 핵심 요소로, 인구 활력을 불어넣어 더 살기 좋은 김제를 만드는 중요한 열쇠"라며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발의 조례안

제29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최승선 의원!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권익위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중 지방의회 공무원 출장비 부담수령 항목 규정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여비 부담수령 방지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

제294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최승선 의원!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송비용 지원 대상을 공무원 등까지 확대하여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호함으로써
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

- 기타 조례안

- 김제시 심뇌혈관 예방 및 관리 조례안(293회)
- 김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294회)

5분발언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9.23)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 분 자유발언

최승선 의원

발언주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유치관련 대응전략 마련 촉구!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최승선 김제시의원, 김제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 유치에 '숨은 공신'

김제=김원호 기자 | 입력 2024-08-05 15:47

| 지난해 3월 5분 발언 통해 유치 주장...지역발전 위한 다양한 제안 '화제'



최승선 김제시의원(왼쪽)·김제시의원(오른쪽)

전북 김제시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유치한 가운데 최승선 김제시의원이 1년전부터 유치를 적극 주장한 것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승선의원은 지난해 3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역소멸위기 타개방안으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유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5분 자유발언이 지방의원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자, 정책대안 제시 등 의원의 의정역량을 가능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가운데 이번 김제시의 2개 특구지정 성과는 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정책 수용성을 보인 결과로 평가된다.

최의원의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은 한두개가 아니다. 지난해 말 제274회 김제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인구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외국인 정책 전담 팀 신설등을 촉구하며, 김제시가 전북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착수케 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생활인구 확대를 비롯한 김제시 인구 10만회복을 위한 민·관·정 상설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등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 굵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최의원은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 타개책으로 외국인 이주 정책과 도농간 양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생활인구 확대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김제시가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방향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게 급선무” 라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이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현재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위기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제시와 시의회뿐 아니라 민·관·정이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모아 극복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고 힘주어 말했다.

제261회 제1차 본회의 (2022.8.17)

제2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최승선 의원

발언주제

도심권 노인들을 위한
휴게공간 마련 대책 촉구



사회 > 전국

최승선 김제시의원 "도심지역 노인들 위한 휴게공간 마련해야"

뉴스1 입력 2022.08.17 14:04 수정 2022.08.17 14:04



최승선 김제시의회 의원이 17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최승선 김제시의회 의원(안전개발위원장)은 17일 도심권 노인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김제시 전체 인구 8만여명 중 4개 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51%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도심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기존의 비좁고 열악한 환경의 노인 휴게공간을 개선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은 신규 개설해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고령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 노출과 운동 부족 등 노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헤아려 집행부가 쾌적하고 건강한 휴게 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언급하며 "농업도시이면서 동시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김제시의 도심권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사업에도 동일하게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제261회 제1차 본회의 (2022.8.17)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 분 자유발언 **최승선 의원**

발언주제

김제시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 촉구!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최승선 김제시의원, 집행부에 시민간의 갈등 적극행정 촉구

일반

기자 백용규 입력 2023년 05월 22일 05:30 지역 김제

 기사 대표 이미지

최승선 김제시의원은 2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제시민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금산면 양계농가 간 갈등과 봉남면 마을에서 문제되고 있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을 언급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갈등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이슈에도 제대로 대응치 않아 사건이 터지고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며,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 “앞으로는 짧아진 패러다임 전환 주기와 가치 다원화로 인한 크고 작은 이해충돌에 따른 갈등상황을 적극행정을 통한 사전 예방책과 해결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행정 부문의 노력이 더욱 절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갈등 완화 조례 및 제도와 정책 검토를 통해 김제시에 맞는 체계적인 도입은 물론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공신력 있는 중재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제=백용규 기자

제290회 정례회 (2025.6.11)

제290회 정례회 개최 5분 자유발언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비 선제 전략 마련 촉구”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치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준비 촉구!

- ①농생명산업, 그린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김제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
- ②공공기관과 지역사회 간 양방향 적용을 위한
‘가족 친화형 정착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 ③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의
질적 전환 준비 등
김제시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추진해야 할
세 가지 차별화 전략 제시



최승선 의원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비 선제 전략 마련"...최승선 김제시의원 촉구

유정 기자=김제 | 기사입력 2025.06.11. 14:18:38



▲김제시의원 최승선(왼쪽) 김제시의원

전북지지도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은 11일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분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시정의 적극적인 준비를 촉구했다.

최승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지역 경쟁력 확보에 전략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로 혁신도시 인구가 연평균 5.8% 지역 내 총생산(GRDP)이 연평균 5.6% 증가했다는 2023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며 김제시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추진해야 할 세 가지 차별화 전략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이전 기관의 특성과 지역산업 간의 연계성이 높을수록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가 최대 2.3배 증가*(한국산업연구원,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산업 연계 방안 연구(2023))였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농생명산업과 그린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김제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의 유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간 양방향 적응을 위한 '가족 친화형 정착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요청하며 이전 공공기관 구성원의 장기 정착을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핀란드 오울루시의 성공 사례를 들여 데이터 센터 설립 전력 공급 인프라 강화 IT 생태계 조성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김제시를 '디지털·문화 기반 융합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이전 기관이 '디지털 행정·문화 혁신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의 질적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선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김제시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역 미래산업 기반을 다지고 사회 혁신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제288회 정례회 (2025.4.28)

제288회 임시회 개최 5분 자유발언

“김제시 환경자원 정책” 제언

환경자원 정책 강화로 지속 가능한 미래 준비!

농업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영농 폐기물 수거함 운영 실태 등을 지적하며 ① 수요자 중심의 영농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정비 ② 생활 속 자원순환을 유도하는 시민참여형 정책 추진 ③ 폐기물 및 재활용 사업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도입과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선도기업과의 협업 등 중점 추진해야 할 3가지 과제를 제안



최승선 의원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 “김제시 환경자원 정책 제언”

✎ 김부용 기자 | ⓒ 입력 2025.04.23 16:42 | 🗨 댓글 0

[투데이안]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은 23일 열린 제 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제시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김제시 환경자원 정책’을 제언했다.

최 의원은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긴박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자원순환 노력 사례를 언급했다.

유럽연합의 2035년 도시 폐기물 매립 비율 10% 이하 감축 목표, 영국 런던의 폐기물 수거 로봇 도입 등 세계 각국이 순환경제 모델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제시 또한 이러한 시류에 발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점 추진해야 할 세 가지 과제로 ▲수요자 중심의 영농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정비 ▲생활 속 자원순환 유도 정책 추진 ▲폐기물 및 재활용 사업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도입과 재활용 선도기업 간 협업을 제언했다.

특히 최 의원은 김제시의 폐비닐 및 폐농약 수거함 운영 현황이 농업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률적인 수거함 크기와 부족한 개수, 부적절한 배치로 인해 농촌 유희공간 축소, 토양 오염, 농촌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조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실정에 맞는 수거함 세분화 및 크기 조정, 설치 확대와 함께 폐기물 발생 시기에 맞춘 집중 수거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 속 자원순환 유도 방안으로 시민 참여형 정책을 제안하며, 실천 포인트 제도와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스마트 재활용 시스템을 활용한 분리배출 안내 서비스 도입 및 페플라스틱 등 신기술 재활용 분야에서 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김제시가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선 의원은 “환경정책 수립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김제시가 선도적인 자원순환 정책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제293회 임시회 폐회 (2025.10.31)

제293회 임시회 폐회 5분 자유발언

“지평선 문화축제발전소 활용 및 AI 민원상담시스템 구축 제안”

지평선 문화축제발전소의 시민 공유공간화와
AI 민원상담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의 디지털 전환 제안!

- '지평선 문화축제발전소'를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공유공간으로 전환하고, 단순 시설을 넘어 추억을 나누는 '인생 큐레이션 공간'으로 발전시키자고 강조
- 민원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AI 민원상담시스템 'AI 지평선'의 도입을 통해 행정 편의와 시민 접근성을 높이자고 제안



최승선 의원

[김제시] 최승선 시의원, 지평선 문화축제 발전소와 AI 민원시스템 활용 제안

✎ 김부용 기자 | ☎ 입력 2025.10.31 18:05 | 📄 댓글 0



[투데이안]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은 10월 31일 제29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평선 문화축제 발전소의 시민 활용도를 높이는 공유 플랫폼 구축과 24시간 대응 가능한 AI 민원상담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올해 6월 준공된 지평선 문화축제 발전소를 단순 시설이 아닌 시민 참여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온라인 예약 기반의 '공간 공유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 '공유허브', 대구시 '스마트 공유공간' 사례를 참고해 회의실, 전시 공간, 공연장 등을 시민 누구나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설 대여를 넘어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인생 큐레이션 서비스'로 특화해 시민 중심의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킬 것을 덧붙였다.

AI 민원상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광주광역시 'AI 당지기', 서울시 '서울톡', 대구시 음성 AI 상담, 경기도 '보이는 ARS' 등 사례를 참고해 김제형 AI 민원플랫폼 'AI 지평선' 도입을 제안하며, 디지털 민원 서비스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평선 문화축제 발전소와 AI 민원상담시스템은 김제시 문화도시 도약과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두 정책 모두 김제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7.13)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 분 자유발언

최승선 의원

발언주제

김제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 촉구!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김제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 촉구(23.07.13)

全羅日報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008면 지역

“효율적 예산 편성·집행 철저한 검증”

최승선 김제시의원 5분 발언 지난해 잉여금 과다 발생 지적

최승선(사진) 김제시의원이 13일 제 271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22년 세입·세출 결산결과 1조 3,829억 4,020만원의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3.2%인 1,826억 4,551만원, 집행잔액이라고 할 수 있는 불용액은 4.3% 수준인 587억 8,362만원으로 나타나 결산상 잉여금이 2,403억 5,272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과다한 잉여금의 발생은 지방재정 운영에 압박 요



인으로 작용하므로 앞으로는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함께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도 예산과 결산을 비교해 보면 세입 결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4,425억 5,400만원이 많고 오차율이 47%에 달해, 추후 해당 부서는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제=이재봉기자

제292회 임시회 (2025.9.9)

제292회 임시회 개최 5분 자유발언

“지명 정비 통해 미완의 일제 잔재 청산 촉구”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제시 지명과 행정용어 영역에서의 시급한 개선 촉구!

김제시는 일제강점기 잔재 관련 자료 정리가 미흡하고
지명위원회의 실질적 활동도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지명 정비를 위한 정책 추진 방안으로

- ① 지명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자료 체계화
- ② 읍면동 지명 정비를 통한 지역 고유성 회복
- ③ 행정용어 속 일본어 잔재 정비 및 언어 순화 등을 제안



최승선 의원

▶ ▶ 지역별뉴스 ▶ 김제시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 “지명 정비로 미완의 일제 잔재 청산해야”

▲ 김부을 기자 | © 일력 2025.09.09 13:54 | ▶ 댓글 0

● ∞ 가 가



[투데이안]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이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완의 과제인 일제 잔재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명과 행정용어 영역에서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민족 정체성과 역사의 결정체”라며, “김제시는 일제강점기 잔재 관련 자료 정리가 미흡하고 지명위원회의 실질적 활동도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명 정비를 위한 체계적 접근과 실질적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3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제안 내용은 ▲지명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자료 체계화 ▲읍면동 지명 정비를 통한 지역 고유성 회복 ▲행정용어 속 일본어 잔재 정비 및 언어 순화다.

또한 포항시 대보면의 호미곶면 변경, 울진군 금강송면·매화면 개칭, 청송군 주왕산면 변경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지명 개선이 관광 자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최승선 의원은 끝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과 문화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우리의 이름을 되찾는 일이 진정한 광복의 완결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

제281회 임시회 (2024.7.26)

제281회 임시회 폐회식



5분 자유발언

최승선 의원

발언주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위한
사회적 돌봄 전략 제안!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위한 사회적돌봄전략 제안(24.07.26)

전민일보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008면 지역

‘가족돌봄자 위한 사회적 돌봄 전략’ 제안

최승선 김제시의원 자유발언

김제시의회 최승선(사진) 의원은 지난 26일 제281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영 케어러(young carer)를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해외 연구를 인용, 한국이 영 케어러 인식 및 정책 대응 수준이 가장 낮은 7단계임을 지적하며, 이들의 돌봄무게를 사회적 돌봄으로 나눠야 함을 피력했다.

특히 ‘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 마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했으며, “대상자 발굴에 맹점이 있어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사례가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적극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가족돌봄·고립 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에서 전북이 4개 광역 지자체에 포함됨에 따라 부



스터 역할을 할 기 초단체가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을 주문하며, 이를 위한 4가지 방안으로 대상자 지역사회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전담 인력

배치와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설치,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 사회적 낙인현상 최소화를 위한 보호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겪고 있는 문제는 결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를 방관하면 미래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김제시가 공공 안전망의 지평을 넓히고 조화로운 공동체 구축에 한 발 더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제=임재영기자

제279회 제1차 정례회 (2024.6.12)

제279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최승선 의원

발언주제

인구 10만 회복을 위한
'민·관·정 상설 협의기구 설치' 제안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인구 10만 회복을 위한 민·관·정 상설 협의기구 설치제안(24.06.11)

2024년 6월 12일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007면 자치시대

“인구 10만 회복 민·관·정 상설 협의기구 설치”

최승선 김제시의원 5분 발언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은 지난 11일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10만 회복을 위한 민·관·정 상설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날 최승선 의원은 ‘인구정책 일관 재외동포정책’을 주제로 서류변화에 부합하는 정책모색을 촉구하며 이민자정책에 주목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및 목표 등 대내외적인 흐름을 강조했고 이에 따른 김제시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인구정책 재구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제시 체류 외국인주민은 결혼이민자를 포함 4000명을 넘어, 시 총인구 대비 5% 외국인 생활인구를 형성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향후 증가추세 또한 전망했다.



특히 고려인 조 선족, 외국국적 동포 등 새로운 수요에 대한 빠른 대응을 주문 했으며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체류특례제도 도입 및 재외

동포청 공모사업 대응 등을 제안했다.

또한 범시민적 역량을 집결할 수 있는 민·관·정 협력기구를 설치해 미래 지향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최승선 의원은 “정책제언은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화두에 해법을 찾는 과정의 일환이자 궁극적으로 인구 변화 대응이라는 국가정책목표 달성에 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김제=최창용 기자

작은축제발굴, 육성연구 전략 수집(25.02.20)

2025년 2월 20일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007면 지역



김제시의회가 작은축제 발굴 및 육성 정책 연구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작은축제 발굴·육성 연구 전략 수립

김제시의회, 착수 보고회 경제·인구활성 연계키로

김제시의회가 18일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작은축제 발굴 및 육성 정책 연구’ 착수 보고회를 열고 지역 특성을 살린 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에는 서백현 의장과 최승선 대표의원을 비롯한 의원 8명, 정책연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특화연구소 오영택 대표의 발표를 듣고 연구 방향과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체류 인구 증대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김제시 여건에 맞는 전략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현 가능성 검토를 통해 생활 인구와 체류 인구를 늘리는 실질적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제=정승훈기자

제295회 임시회 (2026.1.30)

제295회 임시회 개최 5분 자유발언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맞춤형 대응 전략 제시”

AI 기본법 시행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촉구!
‘AI 선도도시 김제’ 도약을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 제안

- ①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AI 전환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 ② 보이스피싱 예방부터 윤리까지, ‘전시민 맞춤형 AI 교육’ 강화
- ③ 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한 ‘AI 집적단지’ 조성 검토
- ④ 농업·산단·안전 분야 ‘AI 모니터링 활용 시범 사업’ 도입

등 4가지 정책 방향 제안



최승선 의원

뉴스종합 > 정치

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최승선 의원,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맞춤형 대응 전략" 제시

기사입력 2026-01-30 20:24



시의회 최승선 의원은 1월 3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올해 정부가 약 10조 1,000억 원 규모의 AI 예산을 책정하고 '인공지능 기본법'을 본격 시행하며 국가 차원의 체계 구축에 나섰다"며, "기초자치단체는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인공지능 시대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최일선 행정기관인 만큼, 변화에 대응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 AI 전환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컨설팅부터 정부 사업 신청 지원, 전문 인력 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전담 창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어 시민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전 연령대 대상의 'AI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노년층과 취약층을 위한 AI 사기 예방 교육과 청소년 윤리 교육을 체계화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주민 맞춤형 교육 자료를 개발해 디지털 소외계층을 배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제시 특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AI 집적단지 조성 검토와 함께 농업·환경 분야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드론 센서를 활용한 병해충 감지 시범마을 운영, 산단 내 불법투기 및 악취 탐지 AI 시스템 구축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증 모델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승선 의원은 "AI 문맹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정보 격차와 지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법 시행 초기 유예기간을 활용해 지역 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돕고,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AI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 신설을 포함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숙 기자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완료



66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완료!

99

▶일시: 2024. 9. 11. (수) 10시

▶장소: 김제시의회 2층 소회의실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에 걸쳐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제시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실·과·소·단별 세부 예산 심사를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심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삭감 없이 원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사로 확정된 예산은 당초 예산인 1조 1,738억 7,900만원보다 478억 5,800만원 증가한 1조 2,217억 3,800만원 규모입니다.



최승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했다."라고 말하며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 추가 경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13일에 열릴 제282회 김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을 거친 뒤 확정될 예정입니다.

견의 • 결의안



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문(23.05.31)

민박도민일보

2023년 6월 1일 목요일 011면 지역



김제시의회가 지난달 31일 새만금 관할권 확보 결의문 채택 후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김제시의회, 새만금관할권 확보 다짐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후 발표 제1회 추경 1조 873억원 확정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지난달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873억원 확정과 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해 총 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939억 600만원 증액된 1조 87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김영자 의장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과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향후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이번에 수립된 추경예산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되어 지

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최승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새만금 지역은 3개 시군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김제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군산시의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조원영기자

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 의 문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준공, 신항만 조성, 스마트수변도시 매립 완료 등 새만금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우리 김제시와 전북도민은 그 어느 때보다 환황해권 중심의 물류 중심도시로 전북이 도약하는 부푼 꿈과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군산시에서는 새만금 지역 내 행정구역 관할권에 대해 정부와 사법부가 제시한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다른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김제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군산시의회 의장의 막말 등 지속적인 도발에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이에, 우리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의 행정구역 관할 결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더 이상 군산시 도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환황해권 물류 중심지인 새만금 개발은 전북의 희망이며 3개 시·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 결정되어야 한다.

하나. 새만금 신항만은 우리 김제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김제시민 모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하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의 김제 귀속 관할 결정 이전에는 절대 추진할 수 없다.

하나. 김제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군산시의회의 도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2023년 5월 31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제266회 임시회 (2023.2.20)

GIMJE CITY COUNCIL

● 제26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건의안

**2024년 공공비축미곡
신동진벼 품종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최소한 소득 보장하라!

최승선 의원



2024년 공공비축미곡 신동진 매입제한 및 보급종 중단철회 촉구건의안(24.12.10)

한국농민협회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011면 지역



김제시의회가 20일 정부의 신동진벼 매입 제한·보급종 중단 방침에 반대하는 건의안을 주장하고 있다.

김제시의회 제공

“신동진벼 매입 제한·보급종 중단 방침 철회를”

김제시의회, 만장일치 건의안

김제시의회는 20일 제266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신동진벼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 방침에 반대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승선 의원은 “정부의 쌀 재배면적 감축, 쌀 재고량 적정 유지 및 생산 단수 정부 기준 초과 등을 이유로 2024년부터 신동진 벼를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에서 제한한 것은 지

역 특수성과 농업인의 헌신 등 지역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통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동진 벼는 김제 대표브랜드인 ‘자평선 쌀’의 품종으로, 일반 쌀에 비해 밥알이 1.3배 크고 쓰러짐이 약해, 거름량을 50% 이상 줄이는 데 기여한 품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동진 벼의 공공비축미곡 매입 제한과 보급종 중단은 김제시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김제시 농

업인들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정부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신동진 벼 보급종 퇴출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쌀 가격 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원, 국무총리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제294회 2차 정례회 (2025.12.16)

GIMJE CITY COUNCIL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결의안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2025. 12. 16.(화) 김제시의회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주민 지분 참여 및 이익 공유 명문화, 부적격 사업자 방지 및
농업인 교육·보험·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강력히 촉구!



최승선 의원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25.12.16)

※ 새전북신문

김제시의회 정례회를 마무리...5분 발언서 지역 현안 제기

발행 2025년 12월 16일 04:12 지역 경제



김제시의회가 16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과 행정을 점검하는 한편,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5분 발언에서 김영자 의원은 김제 동부권의 생활체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꺼냈다.

고령화와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비해 동부권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으며, 파크골프장 조성률 포함한 균형 있는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수관 의원은 로양케닌과 지역 유류 공간을 연계한 도시 친목을 제안했다.

산업시설과 관광, 생활 공간을 본질적으로 본연한 것이 아니라 체류형 도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최승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도입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농업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4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며 35일간의 회기 일정을 소화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김제시 본청과 사업소, 38개 부서와 1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행정 전반에서 확인된 문제점 773건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시정 요구 78건, 주의 34건, 개선 493건, 권고 103건, 보고 65건으로 분류됐다.

예산 심의 결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0.44퍼센트 줄어든 1조2천704억 원으로 의결됐다.

2026년도 본예산은 2025년 대비 1.3퍼센트 증가한 1조1천43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정자 부의장은 정례회 종료에 맞춰 집행부가 이번 회기에서 제기된 지적과 제안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 안전과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덧붙였다./김제=박영규 기자

칼럼 > 독자투고

은퇴자마을(도시) 유치 서두르자

기사입력 2024-06-28 22:13



김제시의회의 의원 최승선

김제시는 노인복지에 있어 선구적 이정표를 세운 도시다. 현재는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노인복지 모범사례의 출발점이 김제시다.

곽인희 시장 재임 시절 조성된 노인종합복지타운은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하다. 이견식 시장 재임 시절 도입한 노인 공동 숙식 제도인 '그룹 홈' 역시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웍' 가입을 인증받았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며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활발하다. 그중 눈에 띄는 법안으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 지난 6월 3일 국회에 발의됐다.

노인복지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듯 여야 의원이 특별법안의 공동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고 정부 측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어 법안이 여야 합의로 속도감 있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벌써 여러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첫 은퇴자마을(도시) 유치에 공을 들이는 지자체는 강원도 춘천시로 알려졌다.

은퇴자마을(도시)는 노인을 위한 주거 기능 외 의료·교육·문화·체육·복지·관광 시설 등을 일정한 규모 이상의 단지에 종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다. 1만 가구 이상 2만여 명이 거주하는 노인주거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2060년에는 전체 인구 중 43.9%가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고령화 속도에 반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해마다 감소 추세여서 은퇴자 등 고령자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지 선택의 폭은 턱없이 좁은 실정이다.

은퇴자마을(도시)는 고령자 및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노인복지의 선구 도시인 김제시도 은퇴자마을(도시) 유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삼국지에서 천재적 전략가로 이름을 떨친 제갈량의 옛글에 생각을 모아 이익을 더한다는 뜻의 '집사광익(集思廣益)'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효과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준비하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집사광익(集思廣益)' 정신이 필요하다.

시정질문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6.16)



최승선 의원
라선거구



김제시 출산지원 및 인구정책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상향하여 반짝 상승하는 듯 보이던 인구수가 정체기에 접어들어 이제까지의 현금성 정책의 경우만으로는 효과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아이돌보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과 산후 조리원 건립 등 '서비스·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산지원과 인구정책의 전환과 다각화가 필요해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선 의원
라선거구



김제시 출산지원 및 인구정책에 관하여

이와 관련해 김제시에서는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출산율과 인구증감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최근 인구증가 정체현상의 원인을 무엇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인구정책의 향후 비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수립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제시 출산지원 및 인구정책에 관하여 (23.06.19)

5면중3면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008면 지역

김제시의원 4명, 주요 현안 '송곳 질의'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무분별한 공동묘지 관리방안 등 주문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지난 16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의 출석한 가운데 오승경,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오승경 의원(나 선거구)은 "김제시 전역에 무분별하게 산재 돼 있는 공동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공원화 계획 및 김제시는 65세이상 노인이 총인구의 1/3을 넘는 초고령 도시일 뿐 아니라 화장문화의 확산과 시민의식 개선으로 올해 3월 기준 김제 화장율이 91.3%(전국 92.1%)를 보이고 있는 데도 도내 타 시 단위중 김제시만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이 없어 비싼 장례비용으로 인한 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설장사시설의 설치계획'이 있는지 답변

을 요구했다.

이어 최승선 의원(라 선거구)은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출산율과 인구감소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최근 인구증가 정세현상의 원인을 무엇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인구정책의 향후 비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수립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주문했다.

황배연 의원(라 선거구)은 지평선공동브랜드 관련, 많은 사업에 산과 홍보예산을 세워 운영하고 있지만 지평선 공동브랜드의 '브랜드 파워'나 '브랜드평판'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지와 오프라인 운영에 있어 연간 판매액과 예산 투입액을 기초로 파악한 효과성과 향후 운영계획을 질의했다.



오승경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대비 김제시가 발굴한 대표적 특례가 있다면 무엇인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북특별자치법'을 활용, 김제시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과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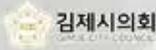
특히 황 의원은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와 관련 '농업소득'이 2021년 대비 2022년의 전국 평균은 26.8%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전북의 경우 42.5%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 김제시의 농업소득 감소 현상은 어떤 수준인지와 민선 7기와 현 8기가 통계청

발표를 인용해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이용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신뢰 받는 통계자료 제공을 위해 민선 8기 김제시가 갖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서백현 의원(마 선거구)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권리 보장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실현을 위해 유니세프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 김제시는 유니세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김제=임재영기자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3.12.6)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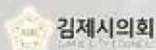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최승선 의원

민간단체 보조금 평가등급 이하 사업에 대해 예산 미삭감 지적 및 지역경제 노동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 지원 및 정책 지원방향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 “행안부 지방보조금법 관리기준 예규에 따라 평가 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예산 삭감과 지원중단을 해야 하지만 김제시는 이를 위배했다”고 말하며 2022년 김제시 재정공시(2021 회계연도 결산기준) 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 ‘미흡 30개 사업’, ‘매우 미흡 12개 사업’이 성과평가 결과와 관계 없이 2023년 예산편성 시 보조금이 집행된 점을 지적했으며 집행부에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의 성과평가 및 그에 따른 예산 반영 문제점에 대한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최승선 의원

견해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에 관해 물었습니다.

이어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노동력 제고를 위한 친외국인 정책으로 외국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집행부에 ‘외국인 정책 전담팀’ 신설과 ‘외국인 정책 청사진’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촉구(23.12.07)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007면 자치시대

“새만금 개발사업에 김제시 적극적인 자세를”

● 김제시의회 시정 질문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6일 정성주 김제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의원들이 나서 시정에 관한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쏟아냈다.

△이병철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 김제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며 관할권 분쟁으로 인해 새만금 개발사업이 지연된 부분의 유무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시장의 입장,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 처리하려 하는 광역 협력 사무에 대한 구체적 설명 등을 답변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와 새만금특별시는 근본적으로 다른 취지의 제도이다”고 말하며 새만금특별시에 대한 시장의 판단과 견해를 물었다.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개선 방향”

△최승선 의원은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 “행안부 지방보조금법 관리기준 예규에 따라 평가 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예산 삭감과 지원중단을 해야 하지만 김제시는 이를 위배했다”고 말하며 2022년 김제시 재



이병철 시의원



최승선 시의원



황배연 시의원



진수관 시의원

정공시(2021 회계연도 결산기준) 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 ‘미흡 30개 사업’, ‘매우 미흡 12개 사업’이 성과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2023년 예산편성시 보조금이 집행된 점을 지적했으며 집행부에 지방보조금관리위 성과평가 및 그에 따른 예산 반영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의 개선 방향에 관해 물었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황배연 의원은 최근 발표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관련해 김제시가 지방시대를 맞이해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9대 정책과 관련된 세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전라북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의 공간 발전 구상과 향후 도시 계획을 어떻게 조화시켜 김제시를 발전시킬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산업 특화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진수관 의원은 지역소멸·학교소멸 완화 대안으로 지역산업 특화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주문했으며 “미래 환경에 대비한 교육 여건 구축을 위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고교 육성이 지역인재 양성, 장래 지역 정착 등 여러 방면에서 유용한 대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제시가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특장차산업과 연계한 자율고를 운영해 교육과정의 실습과 현장 체험, 취업 및 추후 숙련노동자로서 지역 창업을 이끌 수 있다”고 제안하며 지역산업 특화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에 관한 시장의 의견을 요구했다.

김제=최창용 기자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시정질문 (2024.12.6)



최승선 의원



최승선 의원(라 지역구)은 지속 가능성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8년 당시 수립한 '2025 김제 도시계획'이 계획 인구수 과다 계상하여 인구 증가 규모에 대한 재검토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2040 김제 도시기본계획' 인구수가 행정안전부 권고보다 많은 10만 명으로 설정된 점을 언급하며, **올해 수립된 도시 성장 계획 전략의 현실 타당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어서 과잉 공급된 공공시설과 민간택지 시설을 축소된 인구에 맞춰 재배치하는 **적정규모화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김제시 **인구성장 특화 계획 및 정책 제안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지속가능성 있는 도시계획의 중요성 강조(24.12.06)

전북타임즈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007면 지역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 '도시계획전략재정비' 촉구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사진)은 지난 6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현재 불합리한 김제시 도시계획전략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김제시 인구성장을 위한 특화 계획과 정책 제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질의했다.

최 의원은 지속 가능성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08년 실시한 '2025 김제 도시계획'이 계획 인구수를 과다계상해 인구 증가 규모에 대한 재검토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2040 김제 도시기본계획' 인구수가 행정안전부 권고보다 많은 10만 명으로 설정된 점을 언급하며 올해 수립된 도시성장 계획 전략의 현실 타당성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과잉 공급된 공공시설과 민간 택지 시설의 기능별 재배치를 포함한 적정 규모화 계획 대안을 요구했으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제시 인구성장 특화 계획은 무엇인지, 특화 정책의 제안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진정으로 김제시를 위한 도시·인구 성장 로드맵이 그려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도시계획전략 수립과 인구성장을 위한 방안 발굴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김제=온봉기 기자

칼럼 > 김제칼럼

겨울철 김제농촌관광을 위한 곤포 활용 방안

기사입력 2024-10-15 21: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승선

제26회 지평선 축제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지면을 빌어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마음을 다해 감사 인사드린다. 지평선 축제가 끝나고 나면 추수가 시작된다. 벼수확을 마친 김제의 가을들녘엔 곤포사일리지가 흥건만 건 펼쳐지며 한 해 농사의 마침표처럼 너른 들을 점점이 채우게 된다. 겨울철 농한기, 지평선 너른 들과 곤포를 활용하여 김제농촌관광을 활성화할 방법은 없을까?

간간이 뉴스에 등장하곤 하는 크름 서늘 또는 미스터리 서늘이 있다. 논이나 밭의 곡물을 일정한 방향으로 눕혀서 공중에서 보면 어떠한 형태를 나타낸 정체불명의 문양을 말한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며 누가 왜 만든 것인지 알 수 없기에 외계인이 지구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미스터리 서늘을 지평선 너른 들에 곤포로 조성하면 웅장한 대지가 죽어 밭플레이스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평선 축제장을 수놓았던 대지아트와 같이 곤포를 활용한 설치예술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여름철 시민운동장에 설치한 어린이 행복이장처럼 곤포로 미로공원을 조성하여 개방하면 겨울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거리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김제시민뿐 아니라 타지에서라도 즐기러 찾아오는 관광상품으로 내보내 손색없을 것 같다.

지난해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2023 평택 마시멜로 축제'가 처음 열렸다. 곤포사일리지를 활용한 세계 최초의 축제라 홍보하며 평택시의 대표 축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축제에서는 곤포사일리지 베일 작업과 랩핑 작업 등 곤포사일리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선보여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궁금증도 풀어줬다. 특히, 축제 현장을 찾은 한국축제모험 평가단은 저비용과 친환경에 특화된 축제라는 점을 높이 샀다.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레전드급 축제가 탄생했다는 평가다.

김제라고 못할 바 없다. 지평선이 보이는 너른 들녘이야말로 김제만의 자량이 다. 곤포사일리지 생산 규모 또한 타 시군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애써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무방하다. '곤포 미스터리 서늘'을 설치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곤포 미로공원'을 조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이면 족하다. 지평선 너른 들녘에 마련된 곤포 미스터리 서늘을 돌아보며 추억을 살고,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곤포 미로공원에서 슬바꼭질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농한기를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김제만의 겨울철 테마 관광명소가 탄생하는 것을 보고 싶다. 지역사회가 보유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전국 어디에서나 찾아오고 싶은 김제 만들기에 적극 나서기를 바라고 정말 뿐이다.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승선

4년의 발자취



두월천 안심산책로 가로등 조성사업



두월천 시민공원화 및 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 사업명 : 두월천 안심산책로 가로등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24. 10. ~ 2025. 05.
- 위치 : 김제시 오정동 668-30 ~ 김산동 83-2(3.0km)
- 사업규모 : 태양광가로등 49본
- 총사업비 : 300백만원(특별교부세)



봉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봉남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 사업기간 : 2023. ~ 2025. (2년)
 - 사업규모 : 실내게이트볼장 3개소(용지, 백구, 봉남)
 - 총사업비 : 2,760백만원(균 660, 도 440, 시 1,660)
 - 사업내용 : 실내 게이트볼장 각 1동
-
- '21.07월 : 국민체육기금 활용 게이트볼장 조성 계획 수립
 - '23.03월 : 봉남면 주민 설명회
 - '24.09월 : 봉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공사 완료(9.28. 개장식 개최)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 사전 예방 및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 사업 명 :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위 치 : 김제시 검산동, 신평동, 용동 일원
- 사업내용 : 배수펌프장 2개소, 우수지 3개소, 우수관로정비 3,576m(신설관로 포함) 등
- 사업기간 : 2020년~2026년(7년)
- 토지협약 : 65필지 / 65필지 (100%)
- 총사업비 : 41,460백만원 [국비(50%) 20,730 도비(20%) 8,292, 시비(30%) 12,438]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구 지정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1-2지구 펌프장 건설공사 및 2지구 펌프장 토목구조물 공사 및 건설공사 추진, 2지구 우수지 터파기 추진



봉서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상습적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정비사업 시행!

- 사업명 : 봉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위치 : 봉남면 화봉리 23-18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축제 및 보축 L=3.38km, 배수로 개선 L=1.16km, 용수잠관 등
- 사업기간 : 2024년 ~ 2028년(5년)
- 총사업비 : 38,000백만원 [국비(50%) 19,000 도비(20%) 7,600, 시비(30%) 11,400]



동초등학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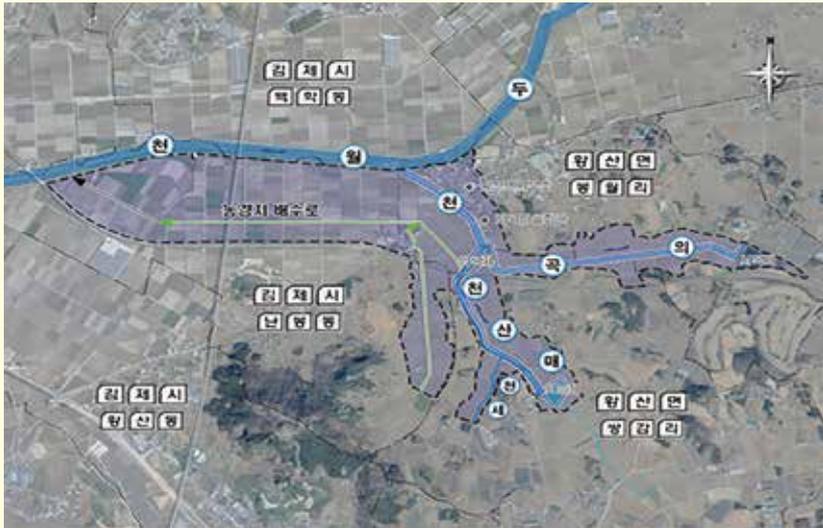


주민여러분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충했습니다.

1. 사업명 : 동초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 사업기간 : 2024. 7. 23. ~ 2024. 11. 09.
 3. 총사업비 : 2,730백만원(도비(50%) 1,250, 시비(50%) 1,480)
※ 24년 추경 1회 시비 230백만원
 4. 사업규모 : 대지 3,445㎡ / 주차장 89면
 5.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조성(89면)
※ 일반-81면, 장애인-4면, 전기차-4면
- 23년 공영주차장 예산 신청(전북도)
 - 실시설계용역 착공 및 준공
 - 슬레이트 철거 착공 및 준공
 - 건축물 철거 착공 및 준공
 - 사업 착공 및 준공



의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적의 방지대책 수립!

- 사업명 : 의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위치 : 김제시 난봉동, 황산면 쌍감리, 봉월리 일원
- 사업내용 : 소하천 정비 L=3.42km, 소류지 정비 3개소 등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5년)
- 총사업비 : 48,516백만원 [국비(50%) 24,258 도비(20%) 9,703, 시비(30%) 14,555]



김제시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 사업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김제꽃빛모악’
- 사업기간 : 2025 ~ 2028년(4년간)
- 사업위치 : 김제 모악산 도립공원 일원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615-6번지, 모악산 도립공원 상가 일원)
- 사업비 : 8,500백만원 (도비 2,800백만원 시군비 5,700백만원)
- 사업내용
 - 관광기반 : 금평저수지 모악꽃빛 파빌리온 조성, 금평결길 야간명소화, 모악산 도립공원 상가 연계 문화장터 조성
 - 관광진흥 : 모악꽃빛 파빌리온 공연 콘텐츠 개발 운영, 명품관광 브랜딩, 주민주도 명품관광지 활성화 사업



봉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공 모 명 : 봉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5년)
- 총사업비 : 60억원(국비 42억 도비 5.4억 시비 12.6억)
- 사 업 명 : 봉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5년) *사업위치 : 봉남면 봉남리 일원
- 사 업 비 : 60억원(국비 42, 도비 5.4, 시비 12.6)
- 사업내용
 - 기초생활거점 : 봉남면 문화복지센터
 - 지역경관개선 : 쉼터조성, 다목적마당 조성 등
 - 지역역량강화 : 교육, 견학, 홍보마케팅, 컨설팅, 정보화구축, 경영지원 등



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사업명 : 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 사업기간 : 2020년 ~ 2025년(6년) ※ 1년 연장 예정
- 총사업비 : 4,000백만원 (균특 2,800 도비 360 시비 840)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희망여는 복지센터(신축), 행복 열린 쉼터(주차장)
 - 지역경관개선 : 활기찬 중심가로 정비
 - 지역역량강화 :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경영지원 등



봉남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사업기간 : 2022. ~ 2025.(4년)
- 위 치 : 김제시 봉남면 신덕마을 일원
- 총사업비 : 2,235백만원(균특 1,459, 도비 183.3, 시비 427.7, 자부담 165)
- 사업내용
 - 노후주택정비 : 슬레이트 철거(35호) 및 개량(17호), 집수리(21호), 빈집철거(20호)
 - 안전·위생 확보 : 폐창고 9개소, 재래식화장실 철거 10개소, 재난예방시설 1식(가드레일설치 152m)
 - 기초생활인프라 : 배수로 정비 259m
 - 주민공동시설 : 마을공동창고정비 1개소(A=115㎡)
 - 경관시설정비 : 담장 정비(자부담포함) 1,503m, 마을입구환경정비 1식
 - 휴면케어 :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문화복지 프로그램, 주택클린서비스, 마을행사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소득사업컨설팅, 선진지견학
 - 제경비 : 기본계획, 세부설계, 공사감리, 석면조사



귀농귀촌 생활SOC ·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5년) ※2년 연장
- 위 치 : 김제시 봉남면 대송리 561-13번지 일원(4,416㎡)
- 시행기관 : 김제시(생활SOC), LH 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임대주택)
- 총사업비 : 금5,319백만원(국비 2,000, 시비 1,319, 기타(LH) 2,000)
- 사업내용 : 주거(공공임대주택 8호), 생활SOC(교류센터신축), 일자리(귀농연계)



원평공설시장 5일장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 용역명 : 원평공설시장 5일장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25. 4. ~ 12.
- 용역업체 : (주)라운트리(대표 최재문)
- 용역비 : 21백만원(시비)
- 용역내용
 - 김제시 현황분석 및 원평공설시장 여건분석
 - 원평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 및 지역주민 의견조사
 - 원평공설시장 특화 사업모델 및 공간구상 제시
 - 관련 공모사업 과제 발굴 등



김제시 공공배달앱 '먹개비' 도입 운영

□ 추진배경

- 코로나 이후 소비환경 변화로 민간배달앱의 활성화 및 독점 지배 구조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배달앱 이용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 필요성 대두
-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낮은 수수료와 무료 광고 지원 등으로 이용 가능한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을 활용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부담경감 및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 통한 상권 보호 및 육성 필요

□ 사업내용

- 민·관 협력형 공공배달앱 활용 지역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완화
 - 낮은 중개 수수료(1.5%), 광고료, 월 고정료, 입점 수수료 無
- 공공배달앱 이용자에게 할인쿠폰 제공으로 고객 유입 및 앱 사용 활성화
 - 소비촉진 프로모션 및 이벤트 추진
-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결제 편의 및 소비자 혜택 제공
 - 김제사랑상품권 상시 10% 할인 ('25.9 ~ 12. 기간 15% 할인)
- 온누리상품권 연동 결제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는 상생 소비 강화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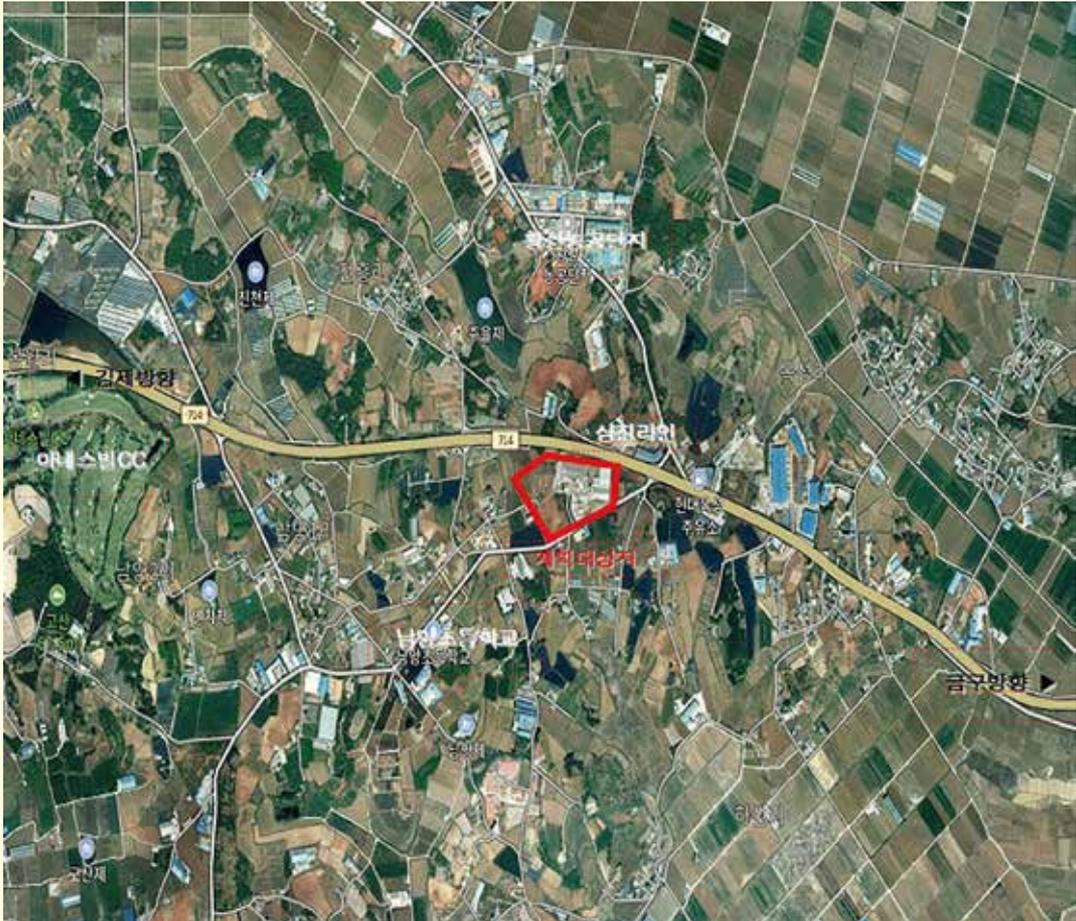
- (소상공인) 낮은 중개수수료(약 1.5%)로 경영부담 완화
- (소비자) 지역화폐 연계와 각종 할인쿠폰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결제금액 절감
- (김제시) 지역화폐와 결제 연계 추진으로 소비자 혜택+지역 내 소비 촉진과 플랫폼 독점 문제 완화로 지역 내 상권 보호 및 육성

김제시
공공배달앱
먹개비

12. 21.(일) 할인 쿠폰 지금 마감

내년도에도 더욱 풍성한 혜택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황산면 아스콘공장 철회 상황 보고



□ 신청현황

- 위 치 : 황산면 진흥리 2-55번지 일원
- 규 모 : 53,939㎡[기존공장 29,127㎡, 증설(아스콘공장) 24,812㎡]
* 기존공장현황 : 토우세라믹(점토벽돌 및 바닥재생산, 1994.9. 사용승인)
-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종류 및 명칭
 -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 추진상황

- 2020.05.11. : 김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제출
- 2020.07.27. : 입안에 미반영 결정 및 통보
- 2020.08.28. : 행정심판청구(토우세라믹→전북행정심판위원회)
- 2020.11.28. :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결과 (청구인의 청구 인용)
- 2020.12.30. : 김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제출
- 2021.02.01. : 입안에의 반영 결정 및 통보(김제시→토우세라믹)
- 2021.06.29. : 입안 신청서 제출(토우세라믹→김제시)
- 2021.08.16. :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 2021.08.24.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21.12.01. : 토우세라믹 방문(진행상황 설명 및 의견청취)
- 2021.12.01. : 박지원변호사 사무실 방문(자문요청 및 청취)
- 2021.12.14. : 김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 2021.12.23.~2022.01.21. :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2.01.06.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요청
- 2022.01.17. : 주민동향 제출(금구면 / 주민동향)
- 2022.01.18. : 주민의견 제출(황산면 / 주민의견및동향, 서명부 1,001명)
- 2022.01.19. : 반대대책위 면담(강철기위원장 외3인-도시과 사무실)
- 2022.01.19. : 반대대책위 민원접수(배상두 외 1,904명)
- 2022.02.03. : 반대대책위 민원회신
- 2022.02.14. : 관련부서(기관) 협의내용 조치결과 제출요청(시⇒토우세라믹)
- 2022.03.14. : 관련부서(기관) 협의내용 조치결과 제출촉구(시⇒토우세라믹)
- 2022.03.21. : 문화재 지표조사 의견서 제출(토우세라믹⇒김제시)
- 2022.09.14. : 관련부서(기관) 협의내용 조치결과 제출촉구(시⇒토우세라믹)
- 2023.05.03. : 관련부서(기관) 협의내용 조치결과 제출촉구(시⇒토우세라믹)
- 2023. 5. 31.까지 미제출시 입안 서류 일체 반려 계획 통보
- 2023.06.02. : 입안신청서 반려 (시 ⇒ 토우세라믹)
- 2023.07.28. : 거부처분 이의신청서 제출 (토우세라믹 ⇒ 시)
- 2023.07.29. : 고문변호사 자문의뢰(박지원 변호사)
- 2023.08.07. : 고문변호사 자문회신
- 2023.08.07. : 거부처분 이의신청서 회신 (시 ⇒ 토우세라믹)
 - 이의신청서 인용여부 : 부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조성



- 매주 화요일 한글교실
- 매주 수요일 원평집강소 시(詩)노래 교실
- 원평집강소 역사교실 사전 예약 진행
- 이웃들의 상설 장마당 운영(무료 위탁 판매)
- 평일 노인일자리 활동 진행



병오년, 2026

힘차게 시작하는 새해

Learned spirit before all work, concentrate on studying first, and then
concentrate on other matters. Therefore, all things will be done smoothly and
easily. 10. 10. 1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힘차게 시작하는 병오년

말의 해, 힘차고 역동적인 기운이 가득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말처럼 당당하게 나아가고,
거침없이 도전하며,
어디서든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품어온 소망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가정에는 웃음이, 일상에는 평안이,
걸음마다 기쁜 일들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활기찬 말의 해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제시의회 의원 최승선 올림

더불어
민주당

국민과 함께

다시 뛰는
대한민국



최승선

현)김제시의회 의원

시민의 목소리를 살아있는 정책으로 만들겠습니다.

